

6.25 전쟁 참전 운정 증언

'종합적정판단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지난 4월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북한반장이었던 김종필 대위의 참전 경험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사전 질의서를 통해, 1949년 연말에 국방부 장관과 미 군사고문단장에게 제출한 '종합적정판단서(綜合敵情判斷書)'의 작성 과정, 중국 내전과 북한 동향 첩보 수집, 남침 판단 근거, 육군본부 정보국의 조직과 참모부의 의사결정 체계 등에 대해 서면질의하고, 지난 6월5일 육군군사연구소 한 설(육군 준장) 소장을 비롯 김상규, 이은연 연구원과 고려대 역사연구소 심지형 대위, 박창원, 조평화 고려대 영상과 연구원 등 육군 군사연구소 연구원 일행이 청구동 자택을 방문하여, 6.25 전쟁을 정확히 예측한 '종합적정판단서'를 작성한 경위와 정보수집 경로에 대해 그리고 참전 전투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질의 1. 연말 종합적정판단서의 작성 과정과 작성을 위한 첩보의 수집 과정, 남침시기에 중요한 요소인 중국 내전 관련 첩보 수집 방법, 1950년 3월 남침 판단 이유, 동북의 용군이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당시 국내외 상황

가. 한국과 미국

- 1946년 1월15일 미군정청은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발족 시키면서 국내외 30여개의 군소 사설 군사단체를 해체하고, 제1연대를 호시로 각도에 1개 연대씩 도합 9개 연대를 창설하였으며, 정부수립 후 49년 6월 종전의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8개 보병 사단으로 확충했다.
- 창군 당시 우리 군은 일제 강점기의 광복군, 중국군,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와 일반 지원자를 충원함으로써, 그 후 출신 군별 갈등상과 좌우 성향별 이질성이 노정되기 시작했다.

- 1948. 8월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군부 내 침투 좌익계열의 사주로 제주도 폭동사건(48년 4월3일), 여수 순천반란사건(48년 10월 19일)에 이어, 49년 5월 제8연대 2개 대대(강태무 소령, 표무원 소령)의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 48년 10월부터 육군정보국(국장 백선엽 대령) 주관으로 군부 내 좌익척결을 위한 숙군을 단행하여 4회에 걸쳐 960여명을 정리했다.
- 한편 미국은 종전 후 남한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소련의 한반도 적화노선을 과소평가하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과 기지의 유지가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마셜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 수립 후 90일 이내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발표하였으며(47년 9월 23일), 49년 6월말 미군사 고문단 500여명만 잔류시키고 철수 완료했다.
- 49년 3월 맥아더 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의 극동 방위선은 필리핀-유구열도-일본-알류산 열도-알래스카 선임을 발표하고 한국을 미국의 주저항선이 아닌 전초 기지로 전략시켰다.

나. 북한과 중공, 소련

- 북한은 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후 그 해 12월 초 모스크바에서 소련 국방상 불가린 주재로 조·중·소 군사 대표자 회의를 열어 조·중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 북한군은 47년 5월 소련군 철수 시 이양받은 전차 150여대로 제115전차부대를 편성한 후, 49년 5월 소련제 T-34 전차 242 대를 추가 인수하여 제105 전차 여단을 창설하였으며, 49년 7월과 8월 사이에 중공군 내 한인부대(동북의용군) 2개 사단을 입북시켜 인민군 제5, 6사단을 창설하였으며 7개의 정예사단 편성을 완료.

- 한편 북한군은 47년 7월 38경비대를 창설하여 소련군으로부터 38선 경비 업무를 인수한 후 48년부터 개성, 백천, 웅진, 의정부 등 서부 38 경계선을 불법 침공하여 약탈, 방화, 살인, 납치 등을 자행하고,

- 월북한 좌익분자 및 북한 내 남한출신 남로당 극렬분자들을 규합하여 인민유격대를 편성, 3-6개월간의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유격 전술 훈련을 실시한 후, 48년 11월부터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통해 전후 10여 차례 2,400여명을 남파시켜 양민학살, 방화, 파괴, 식량 및 물자 강탈 등 만행을 자행하면서 남한 내의 잔류공비들과 합세하여 소위 해방지구 결성을 획책하고 있었다.

2. 작성 과정과 보고 상황

- 1949년 5월 당시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은 육사 8기 졸업생(1,343명)중 성적 우수자 20 여명을 육본 정보국 요원으로 선발 충원하여 정보활동과 첩보수집 기능을 대폭 확충하였다.

- 49년 10월 이용문 국장이 웅진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전출되고 장도영 대령이 정보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유양수과장과 작전정보실장으로 있던 박정희 문관에게 북한군의 실상과 활동상황 그리고 한국군의 대응방안 등을 종합하여 연말까지 적정 종합판단서 작성을 지시했다.

- 보고서 작성 실무자는 전투정보과 북한반장 대리인 나

와 남한반의 이영근 중위가 담당하여 정보국 각과의 자료를 종합하여 유양수 과장과 박정희 실장의 지도로, 1949년 12월 17일 경 작성 완료하여 49년 12월 28일 육본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과 미 군사고문단장에게 제출했다.

※ 이 판단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분야에게 제반 군사 외교와 특히 남침을 위한 인민군의 준비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아군의 대비까지를 포함한 200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였다.

이 판단서는 북한 괴뢰 집단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제반 군사외교軍事外交와 특히 남침을 위한 북괴의 준비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그 기획을 해석평가한 2백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서 아군의대책까지를 포함 건의했던 정확하고 귀중한 군사기록軍事記錄이었으나 불행히도 전란時戰亂時에 소실燒失되고 말았다.

정보국의 작전정보실장作戰情報室長이었던 박정희朴正熙소령 주재主事하에, 북한반의 나와 남한반의 이영근李永根중위가 공동 작성했던 이 판단서 중 기도판단企圖判斷 부분만을 적출摘出 요약要約하면,

- ① 적은 남침 준비를 1949년 말로써 일단 완료했다.
- ② 적의 침공은 1950년 3월이 될 것이나, 동북한인의 용군東北韓人義勇軍의 북괴군 편입이 지연遲延될 경우엔 6월로 연기될 것이다.(이 편입 사항은 5월에 끝났다)
- ③ 소련의 직접 개입은 없을 것이나 중공은 경우에 따라 직접 지원을 할 것이다.
- ④ 적은 전면침공일全面侵攻日까지 아후방我後方 교란攪亂 요인要因을 지속적으로 적극 조성造成할 것이다.(예, 유격 전문 부대인 766군부대의 후방 투입)
- ⑤ 적은 의정부議政府·서울 선線에 전차사단戰車師團을 포함한 3개사단 이상이 주공主攻을 지향하고 개성開城·서울선과 춘천春川·원주原州선에서 각각 1, 2개

사단이조공助攻을 할 것이며 웅진과 주문진 정면에서 각각 견제공격牽制攻擊을 할 것이다.

⑥ 적은 2, 3개월 이내내 남한 전역을 석권席捲하기 위해서 전병력을 일제히 투입投入할 것이다.

⑦ 침공에 투입할 적의 총병력은 최초 단계에서 약 12만, 서울 이남의 공격단계에서 20만명이 될 것이다.

⑧ 적의 전차군戰車群은 아군에 대한 결정적인 위력이 될 것이고 항공기는 지상군 원호援護를 주된 임무로 삼을 것이다.

⑨ 적은 전면 공격에 앞서 기도는닉企圖隱匿을 위한 일련의 정치 공세를 펼 것이다.

※ ‘JP 칼럼’ (김종필 저, 서문당, 1980년4월 8판)

3. 첩보자료의 수집과정

가. 북한 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첩보

- (1) 북한내 파견한 첩보원들의 제보(첩보과)
- (2) 월남 귀순자(민간인, 인민군)에 대한 심문자료(방첩과)
- (3) 북한내 고정 간첩들의 보고.
- (4) 대북교역과정에서 무역업자들로부터 취득한 자료.

나. 인민군의 편성과 동향

- (1) 해방 후 북한 인민군 창설과정에 참여했다가 월남하여 창군에 참여한 인사들의 제보 (최창륜, 박창암, 이기진)
- (2) 체포된 남파간첩 및 인민유격대원의 심문자료.
- (3) 북한에 파견된 첩보원들의 보고.

다. 중국내전 관련 정보

- (1) 중국군 출신으로 창군에 참여한 인맥을 통해 자료 입수. (김홍일, 최덕신, 이성가, 유해준, 송석하 등)
- (2) 장개석 정부의 자료 : 48년 11월부터 특사교환과 초대 대사(신석우) 등의 정무 보고.
- (3) 북한 파견 첩보원 보고.

라. 북한의 외교 및 군사정보

- (1) 주한 미 군사고문단의 제보.
- (2) 미국 영국 등 서방 군사정보기관의 자료.

(3) 북한 방송 보도.

(4) 북한 파견 첩보원 보고자료 등.

4. 남침시기 판단 관련

가. 1950년 3월설

(1) 대북 첩보원 보고 : 49년 말까지 인민군 군사훈련 종료 후 1950년 봄 남침설 제보.

(2) 남파간첩 및 인민유격대원 체포, 심문.

-주한미군 철수 즉시 남침해야 미군의 참전불가(1950년 봄)

-중국 내전 종료 직후 남침설.

(3) 49년 말 미군정보 : 미 극동군 정보참모 월로비 소장은 다음 해 3-4월 남침 적기 판단.

나. 1950년 6월설

(1) 인민군 교육훈련은 18개월 이내에 종료 합의, 18개월 후이면 50년6월.

(2) 동북 의용군 추가 입북은 50년 6월 이전까지 인계.

5. 동북 의용군의 입국 판단 근거

가. 조·중·소 간의 제 협정

- 소련은 무기 등 전쟁물자를, 중공은 내전에 참여한 동북 의용군 부대(미군이 참전할 경우 중공군이)를 각각 지원한다는 조·중·소 간의제 협정 체결에 근거.

나. 북한 인민군의 편성 관련

- 해방 후 북한은 중공군 내 팔로군 출신의 김무정, 마상철, 맹호 산, 이방남 등이 입북하여 인민군 창설을 주도했다.

- 정예부대 편성을 위해 참전 경험이 있는 3만여 동북의 용군의 편입을 적극 주장했을 것으로 판단.

질의 2. 육군본부 정보국 첩보수집 조직과 운용, 적정보고 조치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전방 파견대의 조직과 운영

가. 편성

- 각 파견대는 대위 또는 중위를 대장으로 하고 정규 정

보교육을 이수한 30여명의 대원으로 편성했다.

나. 운용 (활동사항)

- 당시 38선(248km)에는 남과 북이 100~300m의 거리를 두고 도로변에 초소를 세우고 경비를 하고 있었으나, 전쟁 직전까지 200여 만명의 월남자와 상인, 그리고 첩보 요원들이 은밀히 왕래.

- 전방 첩보대원들은 38선을 넘어 평양, 원산은 물론 멀리 압록강, 두만강에 이르는 오지까지 침투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특수조는 만주와 연길, 신경까지 활약.

- 6월 9일에는 동두천(김정숙 대위), 고랑포(김병학 중위) 첩보대에서도 같은 보고를 해왔으며 그 후 확인되었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인민군을 6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 38도선 일대에 배치 완료 한 것으로 확인.

- 6월 22일 고랑포 파견대장 김병학 중위는 남천의 인민군이 38선 바로 북쪽의 구화리로 남하 했고 도강용 단정을 강변으로 옮기고 있다는 등 적의 공격 징후를 알려옴.

2. 남침 전일(6월 24일) 적정보고와 조치 상황

가. 장도영 정보국장에게 보고

- 오전 10시 나는 장 국장에게 그 시간까지 종합된 인민군의 동태를 보고 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 무슨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 장 국장은 동감을 표시하면서 육본 일반 참모들을 상황실에 모이게 하더니 브리핑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 육본 일반참모들에게 보고

30분후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 고급부관 황헌찬 대령 그리고 장도영 정보국장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 ① 적의 동태는 전면 공격 징후가 분명하다.
- ② 전군에 비상태세를 즉시 조치해 줄 것.
- ③ 긴급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책도 건의할 것.
- ④ 적의 주공과 조공 지역으로 예상되는 동두천과 개성의 양 전면에 강력한 정찰조를 침투시켜 적정을 확인할 것.
- ⑤ 비상 정보망도 재정비할 것.

⑥ 이 시간이후 작전국과 정보국의 합동근무반을 편성하여 작전 상황실을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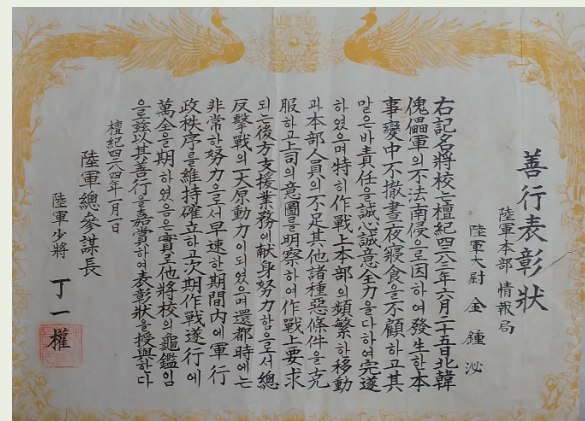
그러나 정보국장을 제외한 일반 참모들은 적의 전면 공격 기도를 부정하면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38선상에서 격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장했다. 다만, 작전국장이 전방부대 지휘관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것과 장병들의 외출 외박은 재량에 따라 조정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다.

다. 조치사항

(1) 정보회의 소집

- 오전 육본 일반 참모회의에서 적정보고를 한 후 장도영

선행표창장 1951년 1월1일



선행표창장

육군본부 정보국
육군대위 김종필

우 기명 장교는 단기 4283년6월25일 북한괴뢰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 사변 중 불철주야 침식을 불고 하고 기 맡은 바 책임을 성심성의 전력을 다하여 완수하였으며 특히 작전상 본부의 빈번한 이동과 본부 인원의 부족 기타 제종 악조건을 극복하고 상사의 의도를 명철하여 작전상 요구되는 후방 지원 업무에 헌신 노력함으로써 총반격전의 일대 원동력이 되었으며 환도 시에는 비상한 노력으로서 조속한 기간 내에 군 행정 질서를 유지 확립하고 차기 작전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음은 실로 타 장교의 귀감임으로 자이 기선행을 가상하여 표창장을 수여한다.

단기 4284년 1월1일
육군 총참모장 정 일 권

정보국장 주재로 정보회의를 소집하여,

- 개성과 동두천의 양 파견대장이 직접 인솔하는 결사 탐색조를 침투시키기로 결정하고 첩보 본부장 김병계 소령으로 하여금 지휘토록 했다.

(2) 결사 탐색조의 업무 시달

- 탐색조원 전원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무전기를 휴대한 분대 병력의 탐색조를 일몰이 늦은 6월의 야음을 기다리다가 23시 행동을 개시할 것.

- 김정옥 대위가 인솔하는 개성파견대 탐색조는 송악산 서쪽 기슭을 타서 개성을 향하고 김정숙 대위가 이끄는 동두천 파견대 탐색조는 전곡을 동쪽으로 우회하여 연천 방면으로 출발할 것.

(3) 결사 탐색조의 행방

- 2개 탐색조는 38선을 넘어 진입하는데 성공했으나 적에게 발각되었다는 무전을 보내온 후 소식 두절됨.

- 그 후 두 김대위는 피난민을 가장하여 남하하여 약 1개월 후 육본이 대구로 이동 한 후에야 우리들과 재회했다.

(4) 당직근무

- 6월 24일 정보국의 당직근무자는 남한반의 서정순 중위였으나 북한반의 책임장교로서 서 중위를 쉬게 하고 대신 당직 근무를 하기로 했다.

- 나는 각 파견대장에게 1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보고토록 지시하고 전방에 배치된 제1, 제7, 제6, 제8사단 사령부의 G2 근무 장교들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

- 6월 25일 새벽 3시가 좀 지나서 포천 파견대장 최낙균

중위가 수비상의 적 대부대가 포천 정면 양문리 만세교 일대에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제1보를 보내왔다. 거의 동시에 제7사단 정보 장교가 '대구경 포탄이 아군 진지에 마구 떨어집니다. 적의 공격입니다. 전차도 쳐들어 옵니다'라고 절박한 보고를 해왔다. 이어 적은 개성, 웅진, 춘천, 전면에서 공격을 개시했고 새벽 5시까지는 38선 전역에서 본격적인 침공을 감행했다.

질의 3. 육군본부의 조직 편성과 운용, 참모부의 의사결정 체계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육군 본부의 편성 (49년 5월 31일 현재)

- 정부 수립후 48년 12월 15일 국방부 직제령에 따라 육군 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칭되고 육군본부에는 육군 참모장과 그 밑에 작전 및 행정 참모부장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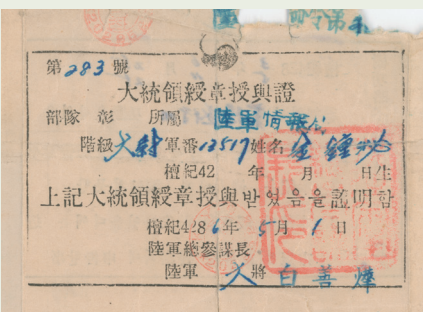
- 작전 참모부장 산하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통국, 군수국, 고급부관실을 두었고 행정참모부장 산하에 재무, 법무, 감찰, 정훈, 후생, 의무, 병기, 병참, 통신 등 9개 감실과 헌병사령부, 포병사령부를 두었다.

- 총참모장 산하에 49년 5월 12일 국군 조직법 제13조에 의거, 종전의 각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어 3개 연대를 1개 사단으로 편성한 8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연대, 1개 독립연대 그리고 육본 직할 부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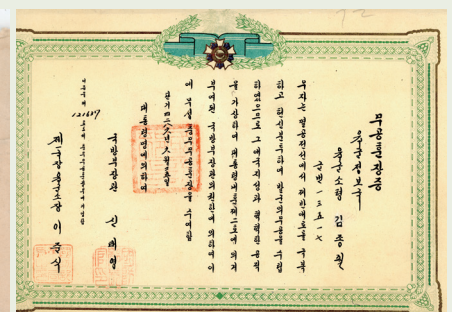
6.25사변중군기장수여증(167947호) 1952년 6월5일



대통령수장수여증(283호) 1953년 5월1일



충무무공훈장증(121637호) 1953년 6월25일



2. 육군 본부의 의사 결정 체제와 문제점

- 육본 정보국은 49년말 적정 종합판단서를 작성 보고한 이후 전쟁 발발 시까지 각종 첩보 자료와 기록 문서 등에 의거하여 북한의 군비 증강 실태, 중공군내 한인부대의 추가 입북과 재편성, 전투사단과 기갑부대의 전선 전개, 동원령의 발동, 38선 인근 주민 소개 등 제반 남침 징후와 상황을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 장관과 미 군사고문단에 계속 보고 했다.

- 그러나 해방 후 미 군정청하에서 창군된 우리군은 49년 6월말까지 주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주한 미 군사고문단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로버트 미 군사고문단장은 기갑출신의 준장으로서는 당시 트루만 행정부의 유럽 우선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부정했다.

- 당시 일본군 병기장교 출신의 채병덕 참모총장이나, 중국군 해군 장교 출신으로 영국 상선의 선장 전력의 신성모 국방장관도 육본 참모들의 건의와 보고보다는 미국 측의 상황판단과 정책에 의존했다.

- 1950년 5월 12일 장도영 정보국장은 UN한국위원단과 회견을 통해 적정 상황과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남침 임박을 예고한바 있으며 미 국무성 정보 참모부도 6월 17일 발한 정기 정보보고서에서 38도선에 연한 광범위한 부대 전개, 38선 5km에서 민간인 소개등도 예시하면서 전쟁 촉발의 징후가 있다고 했다.

- 그러나 전쟁 발발 5일 전인 6월20일 러스크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는 미 하원 외교위에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 군사력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 4. 육군본부에서 야전부대로 전출되어 전투에 참가하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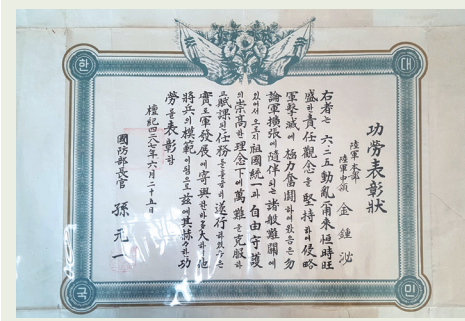
1. 야전부대 참전 경험담

- 52년 4월초 미 보병학교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나는 그 당시 진해에 내려와 있던 육사 교도대 본부 중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나의 직책은 학교 본부의 행정과 재교 생도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4개월 만에 전방 실전 부대 근무를 지원 했다. 그 당시는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정을 앞두고 전 전선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점령하겠다고 피아군간 고지 쟁탈전이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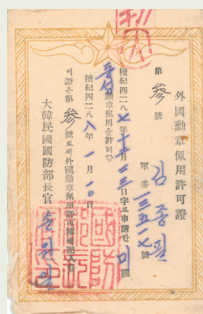


1954년 9월 29일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미국동성훈장을 받고있다.

공로표창장 1954년 6월25일



미국동성훈장(패용증) 1954년 9월29일



금성화랑무공훈장(109349호) 1954년 10월15일



열했을 때였다.

- 나는 52년 8월 제2군단 제6사단(사단장 백인엽 준장) 제19연대(연대장 송호림 대령) 정보참모 겸 수색중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19연대는 화천북방 북한강 지류인 금성천 주변 교암산 밑에 본부를 두고 우측은 수도사단(사단장 이용문 준장)과 인접했으며 적군은 중공군 제12군단(군단장: 회소산) 제35사단 제105연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 그해 10월초 아군(한국군 및 UN군)은 철원과 금화를 점령했으나 평강은 적의 수중에 있었는데 적은 3각 지점에 위치한 평강, 철원, 금화가 각기 도로망이 사통팔달하고 그 지형이 남저북고 임을 간파하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철원과 금화까지 탈취코져 매일 공격을 감행했다.

- 우리 6사단의 경우 금성천 우측의 A, B고지와 울곡리 575고지에서 그리고 수도사단은 지령고지와 수도고지에서, 제9사단은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사수 및 탈환하기 위해 하루에도 3~5회씩 연일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수도사단의 경우 수도고지 하나를 사수 탈환하기 위해 3개월간 4,284명의 아군 손실이 있었으며 인접부대인 9사단은 백마고지에서 10일간 3,421명의 손실을 감수했었다.

- 그 때는 피아간 적정을 먼저 탐지해서 공격 및 방어준비를 했는데 수색중대장인 나는 적진 깊숙이 중대요원을 침투시켜 적정을 탐지하고, 적군을 생포하여 돌아와 심문을

거쳐 파악된 적정을 작전지휘부에 통보해 왔다. 그러던 중 10월 중순 중공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 우리 중대요원을 진두지휘하여 적진에 침투하여 중공군 10여명을 생포하여 돌아와 심문하고 적정을 보고하여 큰 전과를 올린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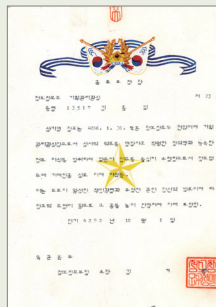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 왼쪽부터 육군군사연구소 김상규 박사(중국문헌), 이은연 언어학박사(러시아 전공), 한 설 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 심지형 대위(고려대 석사과정), 박창원, 조평화 고려대 영상과 연구원, 신문영 재단 사무총장

2. 당시 전공으로 충무무공훈장과 중령 진급

- 그 해 7월 휴전협상을 앞두고 국내의 군사정보 수요의 증가와 나의 소령 진급으로 5월초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6월 25일에는 나의 6사단 근무시 전공이 보고되어 충무무공훈장과 정부로 부터는 침략군 격멸 유공 훈장까지 받고 54년에 육군 중령으로 진급했다.

은성충무무공훈장(8413호) 1955년 1월10일 공로표창장(23호) 1959년 10월1일



※ 전쟁을 모르고 군대를 가보지 않은 채 안보니 애국이니 떠드는 요즘 위정자들에게 6.25 격전지를 한번쯤 돌아보고 오늘이 있기까지 선배, 부모, 형제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는가를 되돌아보아 주기를 권하고 싶다. 雲庭